

제 출 일	2017.12.11	전 공	통계학과
과 목	텍스트마이닝	담당교수	안정용 교수님
조 원	박여울, 임수연		

차 례

01 주제 및 분석기업 선정	3
1. 주제선정	
2. 분석기업 선정	
02 분석	4
1. 분석 목적 및 방법	
2. 분석 결과	
03 개선 방향 및 한계	8
1. 보완점 제시	
2. 분석의 한계점	
04 결론	9
1. 분석 내용 정리 및 요약	
2. 느낀점	
05 부록	11
1. R 코드	
2. 참고 (제품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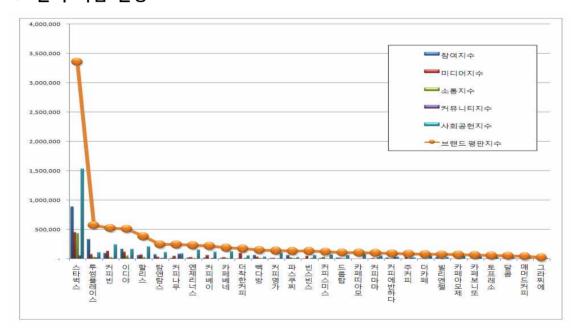
1. 주제 및 분석 기업 선정

1.1 주제 선정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기업별로 다양한 마케팅 전략들이 쏟아지고 있다. 많은 업계 가운데 커피 전문점은 우리의 생활과 가장 가깝게 존재하면서도 많은 매장들을 가지고 있으며, 시즌별 마케팅을 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본 분석은 대표적인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대해 어떤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마케팅 전략 제안을 목표로 하였다.

1.2 부석 기업 설정



2017년 12월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스타벅스'가 브랜드 평판 1위를 기록하였다.¹) 브랜드평판지수 뿐만 아니라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등 모든 부분에서 월등히 높은 것을 보아 스타벅스를 커피전문점의 대표로 삼고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 스타벅스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수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의 반응까지도 수집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¹⁾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56

2. 분석

2.1 분석 목적 및 방법

① 커피 전문점은 '케이크', '플래너', '음료' 등 저마다 자신 있게 광고하고 내세우는 아이템이 다르다. 언론에 무엇을 중점적으로 내세웠는지를 통해 스타벅스의 2017년도 크리스마스 마케팅 전략을 파악하고자 했다.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²⁾에서 '스타벅스 크리스마스'를 검색하여 데이터를 수집했다. 검색된 47개의 뉴스기사를 이용해서 워드클라우드를 그린 후, 빈도수가 높게 나 타나는 단어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스타벅스의 크리스마스 마케팅 전략을 추측해보았다.

- ② 국내 스타벅스의 크리스마스 주력 아이템³⁾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2017년 10월 1일자부터 12월 1일까지 해당 아이템을 검색어로 한 100개의 트위터를 워드클라우드 하였다.
- ③ 더 나아가 국내 스타벅스와 국외 스타벅스의 마케팅 전략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해외 뉴스 기사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했다. 구글에 'starbucks christmas'를 검색하여 나오는 다섯 개 페이지의 기사 제목들을 분석하여 워드클라우드 하였다.
- ④ 해외 스타벅스의 마케팅 아이템⁴⁾에 대한 현지 반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해당 아이템을 키워드로 하여 트위터를 검색했다. lang= 'en'으로 조건을 주고, 2017년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날짜 설정을 하여 100개의 트위터 데이터를 통해 감성분석을 실시했다.

2.2 분석 결과

① 47개의 국내 뉴스 기사를 워드클라우드 한 결과, 스타벅스 코리아는 크리스마스 프로모션 음료를 위주로 홍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결과 1 - 스타벅스 크리스마스 기사 분석 >

운영하고 있다.

^{2) &#}x27;BIGkinds',

³⁾ ①의 결과

⁴⁾ ③의 결과

② 그렇다면 스타벅스 코리아의 크리스마스 음료인 '스노우 돌체라떼'와 '홀리피치 애플사이더'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스노우 돌체라떼'는 다수의 사람들이 음료 위에 올려지는 눈사람 모양 초콜릿에 대해 많이 언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워드클라우드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으로 '희망' 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다. 긍정적인 내용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실제 트위터 내용을 보면 눈사람 모양의 초콜릿이 녹는 것을 보고 꿈과 희망이 사라진다는 내용의 트위터가 많이 RT(리트윗)되어 빈도수가 높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RT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공감하여 하게 된다는 점에 기반하여 생각해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눈사람 모양의 초콜릿 자체에 대해서는 귀여워하면서도 음료를 먹을수록 눈사람이 가라았거나 녹는 것에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홀리피치 애플사이더'에 대해서는 스노우 돌체라떼와는 다르게 '달달', '상큼', '달콤', '새콤 달콤' 등 맛에 대한 묘사가 많이 언급되었다. '쥬시쿨', '자두맛'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홀리 피치 애플사이더'의 맛을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중 '쥬시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맛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었다. 스노우 돌체라떼와 마찬가지로 실제 트위터를 살펴본 결과, '비싼 쥬시쿨'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표현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스노우', '돌체라떼와'라는 단어를 보아 스노우 돌체라떼와 함께 언급되는 수도 꽤 있음을 알 수 있다.



< 결과 2 - 스노우돌체라떼 트위터 분석 >



< 결과 3 - 홀리피치애플사이더 트위터 분석 >

③ 다음으로 국내 스타벅스와 국외 스타벅스의 마케팅 전략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했다. 따라서 'starbucks christmas'를 키워드로 한 해외 뉴스 기사 제목을 분석한 결과, cups 와 cup의 빈도수 합이 11로 나타났다. 이로써 국외 스타벅스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 컵이 주요 키워드임을 알 수 있었다. 스타벅스는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크리스마스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음료 등의 메뉴 뿐 아니라 테이크아웃용 종이컵도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게 디자인하는데, 그에 대한 기사제목이 많음을 의미한다.

국내 스타벅스는 시즌 음료를 내세운 반면, 국외 스타벅스는 컵 디자인에 마케팅 초점을 맞추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같은 기업체임에도 국가에 따라서 마케팅을 달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결과 4 - 스타벅스 크리스마스 해외 기사 분석 〉

④ 'starbucks holiday cups'에 대한 감성분석 결과, -0.17로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4의 극히 부정적인 반응도 눈에 띄는 점이다. 이는 최근 스타벅스 크리스마스컵 디자인에 대한 논란에 의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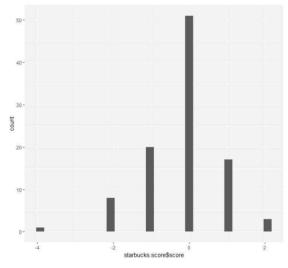
올해 크리스마스 프로모션 컵에는 스타벅스 로고 윗부분에 얼굴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을 두고 온라인에서 동성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레즈비언 커플과 함께하는 스타벅스의 새 크리스마스 광고를 사랑한다"거나 "모두를 포용하는 크리스마스 광고"라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스타벅스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보이콧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도 존재한다. -4를 포함한 부정적인 반응의 대부분이이 논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그림 1 - 2017 스타벅스 홀리데이 컵 >

> table(starbucks.score\$score)

-4 -2 -1 0 1 2 1 8 20 51 17 3 > mean(starbucks.score\$score) [1] -0.17



< 결과 5 - cup 감성분석> < 결과 6 - cup 감성분석 그래프>

이러한 감성분석의 결과로, 앞서 국외 스타벅스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추측했던 '프로모션 컵'이 마케팅 차원에서 언론에 많이 보여진 것이 아니라, 동성애 논쟁으로 인해 많은 기사가 쓰여졌다는 것을 파악했다.

다시 <결과 4>의 워드클라우드에서 컵을 제외하고 보면, 국내 스타벅스와 마찬가지로 'drinks', 'coffee', 'new', 'menu'라는 단어가 많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국내와 국외 모두 크리 스마스 시즌을 맞아 프로모션한 새 메뉴에 주력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3. 개선 방향 및 한계

3.1 보완점 제시

'스노우 돌체라떼'에 대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눈사람 모양의 초콜릿 자체에 대해서는 귀여워하면서도, 음료를 먹을수록 눈사람이 가라앉거나 녹는 것에 있어서는 다소 부정적이었다. 따라서 데코된 눈사람 모양의 초콜릿을 녹지 않는 장난감이나 설탕과자 등으로 바꾼다거나, 우유 거품위에 시럽 또는 에스프레소 샷으로 아트를 그려서 판매한다면 소비자의 긍정적 반응에 효과를 주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스노우 돌체라떼의 경우 작년 크리스마스 프로모션 음료인 메리 화이트 돌체라떼를 업그레이드한 버전의 음료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돌체라떼를 개선하여 판매할 예정이라면 이와 같은 제안을 마케팅에 참고하여 더 나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홀리피치 애플사이더'의 트위터 분석결과에서는 맛을 묘사한 트위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새콤달콤한 맛이 매력이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는 한편, '비싼 쥬시쿨'이라는 표현도 다수 발견되었다. 따라서 새콤달콤한 맛은 유지하면서, 쥬시쿨과는 다른 차별점을 발전·보완 시켜야 '비싼 쥬시쿨'이라는 오명을 벗고, 소비자들에게도 5천원 이상의 가격 차이를 납득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국외 스타벅스의 경우, 컵 디자인의 동성애 논란이 부정적인 여론에 영향을 줬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는 성명에서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고객들에게 성탄절 정신을 불어넣는 경험을 제공하려 한다"며 "전 세계 지점에서 모든 종교와 배경의 고객들을 계속해서 포용하고 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스타벅스의 크리스마스 시즌 컵에 대한 논란은 2015년 부터 계속되어 왔다. 그러므로 컵 디자인에 있어서 종교적 논란이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견해가 연상되는 디자인⁵⁾은 되도록 지양하며, 좀 더 폭 넓게 고객층을 고려하고 디자인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것이 논란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3.2 분석의 한계점

수업시간에 온라인 뉴스 데이터를 수집하는 예를 학습했었으나, 그 코드를 이용하여 기사 본문을 크롤링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 코드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해보 았으나, 주어진 시간 안에 분석을 마쳐야했으므로 불가피하게 뉴스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이 트에서 수집하여야 했다.

국내 스타벅스 마케팅 아이템에 대한 트위터 반응은 감성분석을 하지 못했다. 영어 트위터에 대해서는 긍정어와 부정어에 대한 사전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나, 한글 감성어 사전은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워드클라우드를 그려서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로 반응을 추측해보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5) 2016} __ 크리스마스 컵은 녹색 디자인이었는데, 대선 시기와 맞물려 트럼프를 반대하는 의미라는 논란이 있었다.

4. 결론

4.1 분석 내용 정리 및 요약

각 기업체마다 주력으로 내세우고, 홍보에 힘을 싣는 상품이 있기 마련이다. 매해 크리스마스 마케팅을 선보이는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올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스타벅스에서는 어떤 마케팅 전략을 세웠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뉴스 기사를 통해 프로모션 음료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그와 같은 마케팅 전략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트위터를 가지고 분석해보았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크리스마스 프로모션 음료 중 첫 번째, 스노우 돌체라떼에 대해서는 음료의 맛보다도 음료 위에 올려지는 눈사람 모양 초콜릿이 화제였다. 그러나 긍정적인반응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 초콜릿이 따뜻한 음료로 인해 녹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반응이다수였다. 둘째, 홀리피치 애플사이더에 대해서는 새콤달콤한 맛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으나, '비싼 쥬시쿨'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눈에 띄었다. 따라서 스노우 돌체라떼는 눈사람이최대한으로 녹지 않는 방법, 즉 눈사람 초콜릿이 아닌 장난감이나 설탕과자, 라떼 아트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홀리피치 애플사이더는 본래의 맛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쥬시쿨과 차별점을 두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스타벅스는 국외에도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외 스타벅스에 대해서도 분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해외 스타벅스에 대해서는 구글에서 키워드를 영어로 검색하여 나타나는 해외 뉴스 기사의 제목을 통해 마케팅 전략을 파악하고자 했다. 그 결과 해외 언론에서는 크리스마스 프로모션 컵에 대해 조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내 분석과 마찬가지로 해외의 마케팅 전략 아이템인 컵에 대해서 현지 반응은 어떤지 트위터 감성분석을실시했다. 동성애 논란으로 인해 다소 부정적인 반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는스타벅스사의 소신을 밝히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지난 수년간 스타벅스의 크리스마스 컵 디자인이 논란이 되고 있음을 상기하고,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에 대해 더욱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음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앞서 '컵'이 마케팅 아이템일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동성애 논쟁으로 인해 다수의 기사가 쓰여 졌음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분석 결과에서 'cup'을 제외 하였더니 국내와 마케팅 전략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4.2 느낀점

스타벅스에 대한 기사와 그에 대한 트위터 반응들을 분석해봄으로써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기법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활용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표현해 보는 계기가되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수업에서 배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떻게 다양하게 다뤄볼수 있을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들 속에서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다. 크롤링 과정에서 R코드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공부하게되었고, 수업 시간에 학습했던 코드들 외에 다른 패키지의 사용을 통해서도 텍스트 마이닝에 대해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 평소에 주로 다루던 수치 데이터가 아닌

'텍스트'를 다룬다는 점이 새로웠으며, 텍스트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읽어내어 우리 생활 전 반에 걸쳐 많은 곳에 사용될 수 있음을 느꼈다.

5. 부록

5.1 R 코드

사용 된 라이브러리

library(twitteR)

library(KoNLP)

library(wordcloud)

library(tm)

library(rvest)

library(wordcloud2)

library(stringr)

library(plyr)

[1] 스타벅스에서 중점적으로 마케팅하는 아이템

```
sb = read.csv("starbucks.csv")
```

sb news = sb\$본문

sb_news = as.character(sb_news)

useSejongDic()

sb_nouns = extractNoun(sb_news)

sb_nouns = unlist(sb_nouns)

sb_nouns = sb_nouns[nchar(sb_nouns)>=2] ## 명사 중에서 두 글자이상만 검색

sb_nouns = gsub("스타벅스.*","", sb_nouns) ## 필요 없는 단어 공백처리

sb_nouns = gsub("27","", sb_nouns)

sb_nouns = gsub("29","", sb_nouns)

cnts <- table(unlist(sb_nouns)) ## 명사별 count 결과 저장

cnts_ <- cnts[cnts > 20] ## 빈도수가 20보다 큰 것만 추출

wordcloud2(data.frame(word=names(cnts_), freq=as.numeric(cnts_)),

color = "random-light", backgroundColor = "black", shape="cloud")

[2] 구글 'starbucks christmas' 뉴스 분석

url news1 =

 $news1 = read_html(url_news1) \ \%>\% \ html_nodes(".r") \ \%>\% \ html_text()$

url news2 =

"https://www.google.co.kr/search?q=starbucks+christmas&rlz=1C1NHXL_koKR739KR739&tbs=cdr:1,cd_min:10/1/2017&ei=IYUiWoSZGsa90ASVpoTwCg&start=10&sa=N&biw=563&bih=6

```
35"
news2=read_html(url_news2) %>% html_nodes(".r") %>% html_text()
url news3 =
"https://www.google.co.kr/search?q=starbucks+christmas&rlz=1C1NHXL_koKR739KR739&tbs
=cdr:1,cd min:10/1/2017&ei=U4wiWrK7NcS70ASz2bW4DA&start=20&sa=N&biw=563&bih=
635"
news3=read html(url news3) %>% html nodes(".r") %>% html text()
url news4=
"https://www.google.co.kr/search?q=starbucks+christmas&rlz=1C1NHXL_koKR739KR739&tbs
=cdr:1,cd_min:10/1/2017&ei=h4wiWsG4B8Kj0QTZgrLABQ&start=30&sa=N&biw=563&bih=6
35"
news4 = read_html(url_news4) %>% html_nodes(".r") %>% html_text()
url news5 =
"https://www.google.co.kr/search?q=starbucks+christmas&rlz=1C1NHXL_koKR739KR739&tbs
=cdr:1,cd_min:10/1/2017&ei=yIwiWo7dK4Wi0qTKoqrICQ&start=40&sa=N&biw=563&bih=63
5"
news5 = read_html(url_news5) %>% html_nodes(".r") %>% html_text()
news = rbind(news1, news2, news3, news4, news5) # 구글 뉴스 5페이지의 기사
textMining = as.character(news)
myCorpus<- Corpus(VectorSource(textMining))</pre>
myCorpus <- tm_map(myCorpus, stripWhitespace)
myCorpus <- tm_map(myCorpus, tolower)
myCorpus <- tm_map(myCorpus, removePunctuation)
myCorpus <- tm_map(myCorpus, removeNumbers)
removeune <- function(x) gsub("christmas", "", x)
myCorpus <- tm_map(myCorpus, removeune)
removesb <- function(x) gsub("starbucks", "", x)
myCorpus <- tm_map(myCorpus, removesb)
myCorpus <- tm_map(myCorpus, removeWords, stopwords("english"))</pre>
tdm<- TermDocumentMatrix(myCorpus)
m <- as.matrix(tdm)
wordFreq <- sort(rowSums(m), decreasing=TRUE)</pre>
wordcloud2(data.frame(word=names(wordFreq)), freq=as.numeric(wordFreq)),
color = "random-light", backgroundColor = "black", shape="cloud")
[3] '스노우 돌체라떼' 트위터 분석
consumer_key = 'FEeSv6D4hxCWhd4fhhN129iWT'
consumer_secret = 'rCTyjfLq9NTE04G6S2EBkibbf7cUQ5Ytc0ar7IHU3f72HzehHL'
```

access_token = '912142852477431808-VBGXXvO3kv1oxnbpTaFWaurDjzRg0s4'

```
access secret = 'ihvYgaJ9itar6IdlPMsY5aUfeXnIAGgBbSWSKHwuU9NyU'
setup_twitter_oauth(consumer_key,consumer_secret, access_token, access_secret)
search_string = enc2utf8('스노우돌체라떼')
num tweets = 100
tweets = searchTwitter(search_string,n = num_tweets, lang = 'ko')
tweets
twitter.df <- twListToDF(tweets)</pre>
twitter.text <- twitter.df$text
twitter.text <- unlist(twitter.text)</pre>
twitter.text <- gsub("\n", "", twitter.text)
twitter.text <- gsub("\r", "", twitter.text)
twitter.text <- gsub("RT", "", twitter.text)</pre>
twitter.text <- gsub("https*.", "", twitter.text)</pre>
twitter.text <- gsub("lunah*.", "", twitter.text)</pre>
twitter.text <- gsub("짤이", "", twitter.text)
twitter.text <- gsub("스노우*.", "", twitter.text)
twitter.text <- gsub("== *.", "", twitter.text)
twitter.text <- gsub("스타벅스*.", "", twitter.text)
twitter.text <- gsub("스벅", "", twitter.text)
twitter.text <- gsub("돌체*.", "", twitter.text)
twitter.text <- gsub("체라떼", "", twitter.text)
twitter.text <- gsub("이거", "", twitter.text)
twitter.text <- gsub("그거", "", twitter.text)
twitter.text <- gsub('co*.','',twitter.text)</pre>
twitter.text <- gsub('ke*.','',twitter.text)</pre>
twitter.text <- gsub('h1*.','',twitter.text)</pre>
twitter.text <- gsub('dL*.','',twitter.text)</pre>
twitter.text <- gsub('md*.','',twitter.text)</pre>
twitter.text <- gsub('WJ*.','',twitter.text)</pre>
twitter.text <- gsub('el*.','',twitter.text)</pre>
twitter.text <- gsub('fzl*.','',twitter.text)</pre>
twitter.text <- gsub('A9*.','',twitter.text)</pre>
twitter_nouns <- Map(extractNoun, twitter.text)</pre>
twitter word <- unlist(twitter nouns, use.name=F)</pre>
twitter_word <- gsub("[[:punct:]]","", twitter_word)</pre>
twitter_word <- Filter(function(x){nchar(x)>=2}, twitter_word)
 # 단어별 카운팅
twitter_count <- table(twitter_word)</pre>
cnts <- table(unlist(twitter_word)) ## 명사별 count 결과 저장
```

```
cnts <- cnts[cnts > 5] ## 빈도수가 5보다 큰 것만 추출
wordcloud2(data.frame(word=names(cnts_), freq=as.numeric(cnts_)), size= 1, color =
"random-light", backgroundColor = "black", shape="cloud")
[4] '홀리 피치 애플사이더' 트위터 분석
consumer_key = 'FEeSv6D4hxCWhd4fhhN129iWT'
consumer secret = 'rCTyjfLq9NTE04G6S2EBkibbf7cUQ5Ytc0ar7IHU3f72HzehHL'
access token =
                   '912142852477431808-VBGXXvO3kv1oxnbpTaFWaurDjzRq0s4'
access_secret =
                   'ihvYgaJ9itar6IdlPMsY5aUfeXnIAGgBbSWSKHwuU9NyU'
setup_twitter_oauth(consumer_key,consumer_secret, access_token, access_secret)
search_string = enc2utf8('홀리피치애플사이더')
num tweets = 100
tweets
           =
                   searchTwitter(search_string,
                                                 n=num_tweets,
                                                                      since='2017-10-01',
until='2017-12-01', lang = 'ko')
tweets
twitter.df <- twListToDF(tweets)</pre>
twitter.text <- twitter.df$text
twitter.text <- unlist(twitter.text)</pre>
twitter.text <- gsub("\n", "", twitter.text)
twitter.text <- gsub("\r", "", twitter.text)
twitter.text <- gsub("RT", "", twitter.text)</pre>
twitter.text <- gsub("https*.", "", twitter.text)</pre>
twitter nouns <- Map(extractNoun, twitter.text)
twitter_word <- unlist(twitter_nouns, use.name=F)</pre>
twitter_word <- gsub("[[:punct:]]","", twitter_word)</pre>
twitter_word <- Filter(function(x){nchar(x)>=2}, twitter_word)
twitter_word <- gsub("홀리", "", twitter_word)
twitter_word <- gsub("피치", "", twitter_word)
twitter_word <- gsub("애플", "", twitter_word)
twitter_word <- gsub("사이", "", twitter_word)
twitter_word <- gsub("스타벅스", "", twitter_word)
twitter word <- gsub("Zzarabii", "", twitter word)
twitter_word <- gsub("31", "", twitter_word)</pre>
twitter_word <- gsub("비주", "", twitter_word)
twitter_word <- gsub("12", "", twitter_word)</pre>
twitter_word <- gsub("11", "", twitter_word)</pre>
```

twitter_word <- gsub("리스", "", twitter_word)

```
twitter_word <- gsub("내일", "", twitter_word)
twitter_word <- gsub("작년", "", twitter_word)
twitter_word <- gsub("홀리피치애플사이더", "", twitter_word)
twitter_word <- gsub("군요", "", twitter_word)
twitter_word <- gsub("따스", "", twitter_word)
twitter_word <- gsub("크마스", "", twitter_word)
twitter word <- gsub("co", "", twitter word)
twitter_word <- gsub("스벅", "", twitter_word)
twitter_word <- gsub("StarbucksKinfo", "", twitter_word)</pre>
twitter word <- gsub("DavidDHKK", "", twitter word)
twitter_word <- gsub("29", "", twitter_word)
twitter_word <- gsub("coB4YU9MoaV", "", twitter_word)</pre>
twitter_word <- gsub("B4YU9MoaV", "", twitter_word)
twitter_count <- table(twitter_word)</pre>
                                         # 단어별 카운팅
cnts <- table(unlist(twitter_word)) ## 명사별 count 결과 저장
cnts_ <- cnts[cnts > 5] ## 빈도수가 5보다 큰 것만 추출
wordcloud2(data.frame(word=names(cnts_), freq=as.numeric(cnts_)), size= 10, color =
"random-light", backgroundColor = "black", shape="cloud")
[5] 'starbucks holiday cups' 트위터 감성분석
library(twitteR)
library(KoNLP)
library(wordcloud)
library(tm)
library(rvest)
library(wordcloud2)
library(stringr)
library(plyr)
# 트위터 연동
requestURL= "https://api.twitter.com/oauth/request_token"
accessURL= "https://api.twitter.com/oauth/access_token"
authURL = "https://api.twitter.com/oauth/authorize"
consumerKey="quKLpDhmQpBUP4LIbkQcW62ej"
consumerSecret="s8ZWjNDXvm7qTQIxHyyz7fFf1fvdsHe2E2BicwBv9Qq25qIP2X"
accToken="619920385-jfGc1Yuc9YPIG4Fx5DFmtyQxkMr42lv3RSFdjQbb"
accSecret="rOvVwEhv04qnTuXjdOu1fIr3cGFZPGKuithOYeb4qyTMI"
setup twitter oauth(consumerKey, consumerSecret,accToken, accSecret)
```

감성분석

```
score.sentiment = function(sentences, pos.words, neg.words)
 scores = laply(sentences,
                  function(sentence, pos.words, neg.words)
                    # remove punctuation
                    sentence = gsub("[[:punct:]]", "", sentence)
                    # remove control characters
                    sentence = gsub("[[:cntrl:]]", "", sentence)
                    # remove digits?
                    sentence = gsub('WWd+', '', sentence)
                    tryTolower = function(x)
                      # create missing value
                      y = NA
                      # tryCatch error
                      try_error = tryCatch(tolower(x), error=function(e) e)
                      # if not an error
                      if (!inherits(try_error, "error"))
                        y = tolower(x)
                      # result
                      return(y)
                    }
                    # use tryTolower with sapply
                    sentence = sapply(sentence, tryTolower)
                    # split sentence into wods with str_split (stringr package)
                    word.list = str_split(sentence, "\\scrim*s+")
                    words = unlist(word.list)
                    # compare words to the dictionaries of positive & negative terms
                    pos.matches = match(words, pos.words)
                    neg.matches = match(words, neg.words)
                    # get the position of the matched term or NA
                    pos.matches = !is.na(pos.matches)
                    neg.matches = !is.na(neg.matches)
                    #final score
                    score = sum(pos.matches)-sum(neg.matches)
```

```
return(score)
                  }, pos.words, neg.words)
  scores.df = data.frame(text=sentences, score = scores)
  return(scores.df)
}
pos.words = scan('positive-words.txt', what='character', comment.char=';')
neg.words = scan('negative-words.txt', what='character', comment.char=';')
               searchTwitter("starbucks
                                          holiday
                                                     cups",
                                                              n=100,
                                                                         since='2017-10-01',
until='2017-12-01', lang="en")
tweets_txt = sapply(tweets, function(x) x$getText())
write.csv(tweets_txt, "starbucksTweets.txt")
write.csv(tweets_txt, "starbucksTweets.csv")
starbucks.score = score.sentiment(tweets_txt, pos.words, neg.words)
table(starbucks.score$score)
mean(starbucks.score$score)
hist(starbucks.score$score)
library(ggplot2)
qplot(starbucks.score$score)
```

5.2 참고



< 그림 2 - 스노우 돌체라뗴(좌)와 홀리피치 애플사이더(우)>





< 그림 3 - 스타벅스 크리스마스 프로모션 컵 2015(좌), 2016(우) >